

천관울

무임승차를 단죄하려는 마음은 인간의 보편 정서다. 인간 본연의 도덕 감정과 정의감에 기반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무임승차 징계는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무임승차를 방지하면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사회 구조가 위태로워진다(무임승차자 한두 명이 생기면 억울한 마음에 다들 손을 놓아버리는 팀별 과제를 떠올려 보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피해를 볼 때 뿐만 아니라 별 상관인 경우에도, 무임승차를 보면 분노를 느끼도록 진화했다. 무임승차 응징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분노'다. 기여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원리, 기여한 게 적은데도 더 많이 받아가는 무임승차자는 단죄해야 한다는 요구. 오늘날 청년 세대가 보여주는 공정 감각은 여기에 뿌리를 뒀다.

주요 논의내용

- '무임승차 응징'이라는 공정 감각
- 공정의 원칙
- 관계성의 취약함과 면역

문제인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시작이었다. 입사 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규직화는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본사는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다. 공채 성적이 낮은데도 지역할당제 덕분에 광주-전남 지역 지원자가 한국전력에 합격한다면? 마찬가지다. '자격 없는 사람들의 무임승차'이므로 불공정하다.

이 공정 감각에 따르면, 정부는 경쟁의 과정에서는 무임승차자를 처벌하는 심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의 결과가 나온 후에는 사후 개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원칙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 누구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공정한 규칙이 있을 것. 모두에게 경쟁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될 것. 그렇게 나온 경쟁의 결과대로 보상이 돌아갈 것." 이것을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르자.

'공정의 원칙'은 간결하면서 '보편적'(이 단어가 특히 중요하다)이다. '경쟁 바깥 환경의 불균형 문제'가 있을 때, 이 원칙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여성정책이 있는 이유는 성별 불균형 문제 때문이다. '그 누구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공정한 규칙'은, 실제로는 바깥 환경의 불균형에서 유리한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불공정한 규칙이 된다. 즉, 수도권 대졸자와 남성에게 유리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의 원칙'을 지키려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이다. 첫째, '경쟁 바깥 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그 구조적 불리함을 보정해 주는 길이 있다. 이러면 '공정의 원칙'은 더 이상 간결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구체적인 타인'의 사정과 맥락을 살피는 문제가 된다. 둘째, '경쟁 바깥 환경의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길이 있다. 이것으로 '공정의 원칙'은 간결하고 보편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원래 공정이란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이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심판이 아닌 사람이라는 이유로, 경쟁에서 부당하게 많은 몫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일종의 무임승차다. 이런 식의 반칙과 특권에 대한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내장돼 있다. 이 분노는 반칙과 특권이 작동하기 어렵게 해서 명백히 사회를 더 낮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공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원리는 반칙과 특권에 대한 저항을 넘어선다. '공정의 원칙'은 '경쟁 바깥 환경에서 오는 반칙과 특권'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경쟁 바깥 환경 전체'를 몰아내 버린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다.

이제 질문이 명확해진다. '경쟁 바깥 환경에서 오는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자고 주장하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를 더 낮게 만들 수 있다. '경쟁 바깥 환경 전체'를 몰아내자고 주장하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를 틀림없이 더 나쁘게 만든다.

천관울

기자.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기자가 글 쓰는 직업이라고 잘못 알고 골랐다. 되고 보니 사람 만나는 직업이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시사IN 기자로 일했다. 2021년부터 미디어 플랫폼 alookso 에서 에디터로 일한다.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활자의 매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닌다. 밀정히 쓸 줄 아는 의사소통 도구가 그거 하나라, 예츨보다는 염원에 가깝다.

연대의 원리에서 약자는 위협에 '먼저 당침된 사람'이다. 그게 나왔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약자는 연대의 원리 안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갈 명분이 생긴다. 그게 나 자신을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정의 원리'에서 약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경쟁 바깥 환경'에 불균형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정의 원리'는 연대의 원리를 직접 공격한다. 연대가 흔들리면, 위험이 증가한다. 위험을 나눠 들어서 관리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의 기능이 약해진다. 그리하여 세상은 더 위험한 곳이 된다. 이것이 '공정의 원리'가 우리 사회를 나빠지게 만드는 경로다. 이런 공정 감각은 왜 우리 시대에 두드러지는 것일까.

이탈리아의 경제사상가 루이지노 브루니는 근대성의 핵심 특징을 '면역화 프로젝트'라고 불렀다(〈콤포니타스 이코노미〉). 여기서 면역이란 '관계로부터의 면역'을 뜻한다. '좋은 삶'은 사회적 관계, 우정, 상호성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좋은 삶'은 본질상 타인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본질상 취약하며, 이 취약함을 감당하지 않으면 '좋은 삶'을 얻을 수 없다. 브루니는 근대성이 바로 이 '취약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프로젝트(면역화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브루니는 이렇게 본다. '좋은 삶'에는 타인이 묻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취약함'을 받아들여야만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다. 근대성이란 구체적인 타인을 추상적인 보편 원리로 바꿔서 이 '취약함'을 제거하려 했던 프로젝트였다. 그것으로 '좋은 삶'을 함께 제거해버렸다. 이제 이 렌즈를 들고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공정의 원칙'을 다시 읽어보자.

“그 누구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 공정한 규칙이 있을 것. 모두에게 경쟁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될 것. 그렇게 나온 경쟁의 결과대로 보상이 돌아갈 것.” 이것은 구체적인 타인을 추상적인 보편 원리로 대체하는 시도다. 상황과 맥락의 구체성을 보편 원리로 대체할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한 원칙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추상적인 보편 원리는 우리에게 일관성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러나 그 대가로 제거해 버리는 '구체적인 타인'이야말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문제다.

'공정의 원칙'이 특히 청년세대에게 두드러진다는 우리의 관찰에 대해, 브루니라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다. “공정의 원칙은 근대성에 내재한 '면역화 프로젝트'다. 한국의 청년세대가 유난히 공정에 민감하다면, 그것은 그 세대의 도덕적 결함이나 문제라기보다는, 근대성이 갈수록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베는 공정 감각의 예외가 아니라 한 극단이었다. 마찬가지로, 공정 감각 또한 예외가 아니라 극단이다. 이 공정 감각은 근대성의 승리를 밀어붙일수록 순수한 형태로 정제되어 우리 눈에 더 잘 띄게 되었을 뿐, 우리 시대 청년들의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다.

타인이 주는 '취약함'으로부터 '면역'을 얻겠다는 태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2019년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 때 홍콩 공항에서 발이 묶인 한 일본인 관광객은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했다. 이 장면은 당시 홍콩인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조롱 대상이 됐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장애인 이동권에 찬성하지만 그들이 나의 출근을 방해할 권리는 없다.” 이런 주장은 공론장에서 '진지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둘은 얼마나 다른가?

두 가지를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첫째, 이런 공정 감각은 남녀 모두에게서 발견되지만, 분명 남성들에게서 더 두드러진다. 여성들은 성별이라는 조건 때문에 '구조적 차별' 문제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므로, '공정의 원칙'에 대해 남성들만큼 확신에 차 있지는 않다. 둘째, '공정의 원칙'이 청년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원칙에 열광하는 정도는 계층적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 미디어 플랫폼 alookso에서 '공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문장을 주고 동의 여부를 묻은 결과, 하층 청년으로 갈수록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

두 예외는 '공정의 원칙'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힌트다. 젠더나 계층에서 '경쟁 바깥 환경의 불균형 문제'를 삶의 경험으로 체감할수록 '공정의 원칙'은 인기가 없어진다. '공정의 원칙'은 경쟁 바깥 환경이 무균실이어야 지켜질 수 있는데, 하층 청년과 여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다른 경험에 노출된다.

일시
2022년 4월 18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